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2. 1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獨, '외로운 늑대' 자행 총기 인질극 발생

- 12.10 독일 드레스덴 소재 쇼핑센터에 총기를 소지한 괴한이 난입해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된바 있는데, 언론은 최근 '쿠데타' 모의 적발 이후 발생중인 강력사건들에 대한 치안 불안 우려
 - * 인명피해는 없었으며, 경찰은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단독으로 벌인 '외로운 늑대'형 범행으로 추정

○ 獨, 극우세력 국가전복 대비 '총기규제' 강화 추진

- 12.12 獨 「낸시 패저」 내무장관은 최근 무장공격으로 국가 전복을 계획한 극우 '제국시민(Reichsbuerger)*' 운동가 25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 반자동 총기 금지 등 총기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
 - * 現 민주 연방정부를 부정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의 '제2제국'을 추구 (약 2만3천명)하며, 지난해 239건의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1천명 이상 총기허가 취소

미주

○ 美 CIA, 시리아 쿠르드족 공습한 튀르키예 강력 경고

- 12.8 美 「번스」 CIA 국장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에 대한 튀르키예軍 드론 공습과 포격에 대해 ISIS 격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美軍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同 작전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
 - * 튀르키예는 지난 11.13 이스탄불 폭발 테러(사망 6, 부상 80)를 쿠르드노동자당 (PKK) 소행으로 지목, 쿠르드족 군사 거점에 대해 보복 차원의 드론공습과 포격 감행

○ 美, 시리아 內 'ISIS' 중간간부급 2명 사살

- 12.11 美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특수부대를 투입하여, 시리아 內 다수의 테러공격에 가담한 「게레로 아나스」* 등 ISIS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 2명을 사살하였다고 발표

* ISIS 시리아 '지역대표'로 알려져 있으며, 시리아 내전 中 다수 테러공격 지휘

아 · 태평양

○ 호주, 퀸즐랜드州 총격전으로 6명 사망

- 12.12 언론은 호주 퀸즐랜드州에서 총기로 무장한 용의자 3명이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총기를 난사, 경찰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용의자 3명은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다고 보도

○ ISIS, 아프간 카불 소재 '호텔 테러' 배후 자처

- 12.12 아프간 카불 소재에서 중국인 다수가 이용하는 호텔에 무장 괴한이 침입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하고 18명의 부상자(중국인 5명)가 발생하였으며, ISIS가 배후를 자처

* 중국 외교부는 아프간 측에 철저한 조사와 중국인 보호 조치를 요구

중 동

○ 이라크, 바그다드 북부에서 ISIS 잔당 6명 사살

- 12.10 이라크 당국은 바그다드 북쪽 살라후딘州에서 이라크軍과 親정부 민병대원 등이 ISIS 잔당과 교전을 벌인 결과 2명의 자폭 테러범 포함 6명을 사살하였으며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

* 이라크軍은 최근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ISIS에 대해 대대적인 소탕작전 수행

○ 이스라엘 언론, '알카에다 우라늄 확보' 주장

- 12.12 이스라엘 일간지 '마리브'는 이란이 예멘 후티 叛軍에게 핵무기 원료인 농축 우라늄 전달과정에서 알카에다가 일부를 가로챘다고 보도

* 한편, 해당 우라늄의 농축도 및 이란의 우라늄 전달 동기 등은 미확인

알제리, 알카에다의 차량 자살폭탄테러 공격

- '07.12.11, 알제리 수도 알제 시내에서 '알카에다 마그렙 지부(AQIM)' 조직원에 의한 2건의 차량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200여명 사상(사망 70여명)
 - 테러는 UN 사무소 단지과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10분 간격으로 발생했으며, 이로 인해 다수의 UN 기구 및 세계식량계획(WFP) 사무실 등이 파괴되고 현지에 파견된 직원 17명 사망
 - 다음날인 12.12, AQIM은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며, 대원 4명이 차량 2대에 각각 800kg의 폭탄을 싣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
 - 同 테러에 대해 UN 난민고등판무관 「안토니오 구테흐스」(現 UN 사무총장)는 UN이 공격 목표였음이 명백하다며, 인도주의적 활동을 방해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욕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
 -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, AQIM이 지난 '03.8.20 발생한 바그다드 폭탄테러*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, UN을 직접 공격했다는 점에서 장차 유럽 내 알카에다의 활동 증대 가능성을 우려
- *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 UN 사무소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특사 등 24명이 사망하였으며, 이후 UN은 이라크에서 철수 결정

테러 상식

< 알-카에다 마그렙지부(AQIM) >

- (결성) '98년 GSPC 설립, '07년 AQIM(Al-Qaida in the Islamic Maghreb)으로 조직명 변경
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01.10), 미국('02.3), 캐나다('02.7)
- (핵심인물) 압델말렉 드루크델(최고 지도자)
- (활동지역) 알제리 및 말리북부·튀니지 남부·모리타니·니제르 등 북아프리카 지역
- (활동수법) 對정부 게릴라전 및 외국인 인질납치
- (주요테러) '11.8 '알제리 세르셀 군사학교' 연쇄폭탄 테러로 軍 장교 등 44명 사상
'13.1 '알 무라비툼'과 함께 알제리 '인 아메나스 가스전' 공격으로 39명 사망
'14.5 튀니지 케세린(알제리 접경)에서 내무장관 주택 기습으로 경찰 4명 사망